

광양매화축제 젊은층에 파고들어야

광양시 평가보고회...특산품·음식 개발하고 홍보 강화 필요 올해 관광객 200만명 이상 방문 경제 파급효과 523억원

광양매화축제가 지역 명품축제로 성공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특산물 판매점을 재배치하고 젊은층을 겨냥한 불고기음식 개발과 SNS채널을 활용한 홍보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광양매화축제위원회는 최근 김중호 위원장 주재로 축제추진위원회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양매화축제 보고회를 열고 축제 결과와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대한민국 불꽃 축제의 서막을 여는 광양매화축제는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섬진강변 백운산 자락의 약 33만㎡의 매

화 군락지가 섬진강 물길을 따라 펼쳐지는 장관을 연출하며 매년 1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남도의 대표 축제다.

특히 올해 매화축제에는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2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아올 정도로 상춘객들로 북적거렸으며 옥룡사지 등 시의 주요 관광지에도 관광객이 크게 증가했다.

또 광양을 서천변 불고기타운을 비롯한 마덕포구와 이순신대교 먹거리 타운도 매출이 평소보다 30~100%까지 증가했다. 아울러 광양읍과 중마동 숙박업소도

30%이상 매출이 증가하는 등 523억원 상당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매년 행사 때마다 반복되는 주행사장인 매화주차장 인근 도로의 주·정차로 인해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차가 뒤엉켜 관광객들의 불편이 잇달음에 따라 신원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와 함께 둔치주차장 일부를 버스전용주차장으로 운영했다.

이와 함께 셔틀버스 운행구간을 지정하는 등 지금까지 교통운영체계를 개선한 점이 원활한 교통 흐름을 가능하게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열린 축제평가 용역 결과 보고에서는 축제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광양매화축제가 광양의 대표 브랜드로서의 가치가 충

분함에 따라 특산물 판매점의 재배치와 젊은층을 겨냥한 '노랑진깍박' 같은 불고기음식 개발과 SNS채널을 활용한 홍보 등을 제시했다.

김문수 광양시 관광과장은 "축제장의 지리적 여건으로 도로나 주차장 확충에 한계가 있긴 하나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둔치주차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진출입로와 연약지반 개선 등 용역결과에서 제시된 사항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열린 매화축제도 관광객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시민과 관광객 모두를 만족시키는 매화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광양=김대수기자 kds@kwangju.co.kr



“한려대·광양보건대 폐교 안된다”

대책협의회, 사학법 개정안 조속 처리·정상화 촉구

광양시의 대표 대학인 한려대와 광양보건대가 폐교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책협의회는 이날 사립학교법 개정안(공동위원장 정현복)은 지난 1일 광양시청 재난상황실에서 협의회를 열고 한려대학교와 광양보건대학교의 정상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사진>

대책협의회는 이와 함께 조속한 시일 내 두 대학의 정상화 지원책 마련과 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를 바라는 정부 건의서를 채택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2018년 제2주기 대학역량진단을 앞두고 지구책을 마련하고 있는 한려대학교와 광양보건대학교의 정상화를 위해 현재 국회에 발의중인 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가 시급하고 정치권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 중소도시의 대학교는 단순히 인재만을 양성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주여건 개선, 실물경제 활성화 등 도시발전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두 대학의 폐교는 80만 광양민권 발

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 때문에 반드시 존치돼야 한다는 의지를 결집했다.

대책협의회는 논의된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지역대학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청와대와 국회, 교육부, 전남 도지사 후보자 등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공동위원장 정현복 광양시장은 “학 교 정상화를 위해 지역사회가 관심을 갖고 혼신의 힘을 쏟고 있다”며 “대학의 존폐 문제는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양지역 대학교 정상화 협의회는 정현복 광양시장과 송재천 광양시의회의장, 임원재 광양교육지원청교육장, 황재우 (재)백운장학회 상임이사 등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사회단체장 등 18명으로 구성됐다. 2016년부터 한려대학교와 광양보건대학교의 정상화를 추진 중이다.

/광양=김대수기자 kds@kwangju.co.kr

광양~아프리카 해상 직항로 개통

1만3000TEU급 11척 투입 연 8만TEU 신규 화물 창출

광양항과 아프리카를 오가는 항로가 개통됐다.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방희석·이하 공사)는 지난 26일 광양항 CJ대한통운터미널에서 아프리카 항로 취항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새로 개설된 아프리카 항로는 세계 2위 스위스 선사인 MSC가 운영하고 중국과 싱가포르, 스리랑카, 토고, 남아공 등을 주 1회 운항한다.

이 항로는 1만3000TEU급(1TEU는 6m 길이 컨테이너 1개) 초대형 선박 11척이 투입되며 호남지역에서 생산되는 전자제품 등 각종 공산품들의 수출 지원을 위한 전용 직항서비스로 운영된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방희석 사장은 “광양항 인센티브제도 확대 개편에 따른 물류비 절감과 24일 크레인 3기 도입을 통한 부두 생산성 향상 등이 항로 개설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이번 취항으로 연간 8만TEU의 신규 화물 유입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사는 이번 취항을 통해 세계 최대 해운동맹 '2M+HMM 전라적협력(머스크,



지난 26일 광양항 CJ대한통운터미널에서 열린 아프리카 항로 취항 기념식에서 방희석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사진 오른쪽에서 다섯 번째)과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여수광양항만공사 제공>

MSC, 현대상선)'의 광양항 비중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광양항-아프리카 대륙 구간

의 물류 이용이 한층 수월해 질 것으로 내다봤다. /광양=김대수기자 kds@

전어의 본고장 망덕포구서 '전어잡이 소리' 공개행사 6일 무점점광장

광양시는 오는 6일 오전 11시 전어의 본고장인 진월면 망덕포구 무점점 광장에서 '전어잡이 소리 공개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광양 진월 전어잡이 소리 보존회(회장 김일선)에서 무형문화재의 원형 보존과 전승을 위해 그동안 갈고 닦은 가락을 외부에 공개하는 자리다.

이날 행사는 보존회원과 마을 주민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공연의 형태로 진행된다.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57호인 '진월 전어잡이 소리'는 광양만 일대 어민들의 희노애락이 담긴 어로민요로 섬진강 하구와 남해안 지역민들의 삶의 다양성과 광양만 어업활동의 문화적 특징을 담고 있는 광



지난해 열린 전어잡이 소리 공개행사.

양의 문화유산이다.

특히 '노젓는 소리', '그물내리는 소리', '그물당기는 소리', '가래질 소리', '만선 긴소리', '도부꾼 퍼주는 가래질 소리' 등 총 6개의 소리로 이뤄져 광양만의 자연환경과 생활모습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 소리로 평가받고 있다. '진월 전어잡이 소리'는 1999년 8월 1일

진월 신담마을 주민을 중심으로 결성된 '진월 전어잡이 보존회'를 통해 전통의 맥을 잇고 있으며 80여 명의 회원이 한자리에 모여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일선 회장은 “보존회에서는 지역의 전통 어로작업 노동요인 전어잡이 소리시연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아 개최

하는 이번 공연을 통해 시민들에게 전어잡이 소리를 알리겠다”고 말했다.

광양시 관계자는 “보존회가 매년 전어잡이 소리 공개행사를 통해 전통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있다”며 “지역의 무형문화재를 잘 보존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기자 kds@

진상·다압면 상수도 공사 이달중 마무리

광양시가 진상면과 다압면에서 추진 중인 지방상수도 공급 공사가 이달 내 마무리될 전망이다.

시는 공사가 마무리되면 진상면 비촌마을 등 7개 마을 460가구와 다압면 향동마을 등 11개 마을 559가구 등 총 18개 마을 1019가구에 지방상수도가 공급된다고 3일 밝혔다.

이 지역은 그동안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아 지하수나 하천수를 이용해 물을 공급받아 왔다. 이로 인해 봄철은 미세먼지 등에 노출되고, 물이 적어지는 갈수기에 하천수나 지하수의 고갈로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었다.

시는 지난 2014년 2월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시작으로 4년 3개월 동안 총 사업비 106억원을 투자해 배수지 7곳, 가압장 10곳, 상수관로 90km를 설치했다.

시는 봉강면과 옥룡면의 고지대에 있는 죽림마을 등 14개 마을 653가구를 대상으로 내년 중순까지 60억원을 들여 지방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옥곡면 고지대에 위치한 수평마을 등 16개 마을 688가구에도 8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20년까지 지방상수도 공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광양=김대수기자 kds@

광주일보 창사66주년

더 나은 세상을 위하여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군산 속으로 한발 더! 시민 곁으로 한뼘 더!

다가가는 군산시의회가 되겠습니다.

군산시의회

어려이 행복동 주민